

미중 군사갈등을 둘러싼 동북아 평화 시나리오

- 수정주의적 시각 -



이 양 호 (고려대학교)
(rheeyaho@naver.com)

국문요약

동북아에서 과거 냉전적 국제관계는 미국-일본-한국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을 또 다른 축으로 했다면 탈냉전적 국제관계는 미국-일본-북한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중국-러시아-한국을 다른 축으로 하는 세력균형이 점차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동북아 상황을 시나리오 사고를 통해 수정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해본다. 평화가 찾아드는 시나리오로는 “반딧불”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갈등과 긴장의 시나리오로는 “투키디데스 함정” 시나리오를 들었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서는 “인디펜던스 데이” 시나리오, “말괄량이 길들이기” 시나리오, “늑대계약” 시나리오, “김멜” 시나리오를 설명하였다.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은 비동북아 세력인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태 여하에 따라 평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갈등과 긴장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다.

주제어 : 동북아, 시나리오, 평화, 수정주의

I. 서론

최근 동북아의 국제적 상황이 예견을 불가능하게 한다. 과거 미국-일본-한국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중국-러시아-북한을 하나의 축으로 하던 동북아에서의 냉전적 세력균형이 변하여 이제는 미국-일본-북한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중국-러시아-한국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탈냉전적 세력균형이 서서히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차원에서 잘나가는 국가들과 경제가 쇠퇴하는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본인 피납자들에게 대한 문제나 전쟁배상금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아울러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으로 연설하는 일이 벌어졌다. 반면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과 미국이 외교라인을 통해 이것을 반대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행태도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가장 군사화 된 사회”이지만 “가장 고립된 사회 중 하나”이며 과거에 한국과 미국에 위협을 했지만 북한과 같은 후진국이 강력한 강대국 미국의 지원을 받는 가장 발전도상국 국가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Bennet 1996, 95). 과거 국제정치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가?

동북아에서 이러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반사실적 언술(counterfactual narratives)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제관계 저명 저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18,764 논문 중에서 302개에서만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Junio 2013, 374). 시나리오는 특히 데이터가 많지 않은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설을 통해 이론화 작업을 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시뮬레이션(simulation)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몇몇 학자들은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대결적 세력전”, 중미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협력적 세력균형 질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 상실과 중국의 성장 정체로 이루어지는 “세력분산의 무질서”를 상정하고 있다(성기영 · 김지영 · 엄상윤 · 은용수 2014, 23-34).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안정이 이루어지는 평화 시나리오, 갈등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정한 갈등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나리오 사고(scenario thinking)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II. 동북아의 예측 불가능성 증가와 그 요인

동북아에서 국가간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냉전적 사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신에 불확실성(uncertainty)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일본의 우경화, 북한 핵보유, 남중국해와 동해에서의 해양주권분쟁, 대만문제 등이다(Krause 2014, 1421). 대표적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락이다.

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부상하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거의 20여년 만에 굽는 기아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 도약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아시아,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거의 10-15년 동안 개혁 당시의 경제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를 겪는 “전환침체(transition recession)”를 겪은 반면 중국은 전환침체를 겪지 않았다. 그러나 불평등 수준이 높아져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기는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는 받을 돈이 많은 채권국이 되어 있다. 물론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팔린다 해도 중국 기업의 0.3%만이 스스로 개발한 제품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Zhu 2010, 38). 에이먼 핑글턴(Eamonn Fingleton)처럼 미국이 용의 이빨에 물렸다(In the Jaws of Dragon)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을 반대하는 기업이나 중국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왕따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는 미국도 유교화 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에 반해 강대국이던 일본은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신흥 공업국가로서 미국에 필적할 만큼 강대국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거의 몇 십년 간 경제가 침체하여 “잃어버린 몇십년(lost decades)”을 이야기할 정도로 불황을 겪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경제는 침체를 계속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여전히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본은 이제 과거 아카마쓰(Kaname Akamatsu)가 주장한 “날으는 기러기떼(flying geese)” 성장모델의 선두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추락하는 일본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일본 기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둘째, 일본의 우경화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미국은 일본 패전후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하여 공산세력에 대한 방어벽을 이루게 했다. 일본도 미국의 점령을 인정하고

노사카(野坂) 등 일본의 사회주의세력까지도 “침령하 평화혁명론”을 내세워 미국의 일본지배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평화헌법을 통해 일본의 팽창주의적 군국주의를 억제하였다. 또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무라이마(村山富市) 등 전총리들이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일본이 크게 변했다.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아베총리는 일본의 사죄를 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아베 담화는 우경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극우로 비판받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가 2015년 4월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전쟁범죄와 역사관을 공식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 사건이었다. 물론 에이먼 핑글턴에 의하면 미국 의회 의장 보에너(John Boehner)가 일본재벌체제가 공화당에게 자금줄이 되기 때문에 연설에 초청했다는 평가도 있다(<http://www.forbes.com>). 물론 역사의 아이러니일지 몰라도 핑글턴은 아베총리가 연설한 날짜인 4월 29일이 천황이 태어난 1901년 4월 29일과 같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여하튼 일본 수상이 미국상하원 합동연설에 초청되어 연설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변화에 따라 자신감을 느낀 아베 정권은 전 일본총리들이 취한 정책을 파기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만회할 수 있는 출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 즉 전쟁과 우경화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 잘나가던 일본기업들이 후발주자에 의해 따라 잡히고 더 이상 세계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 한중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방문과 한국의 대중 접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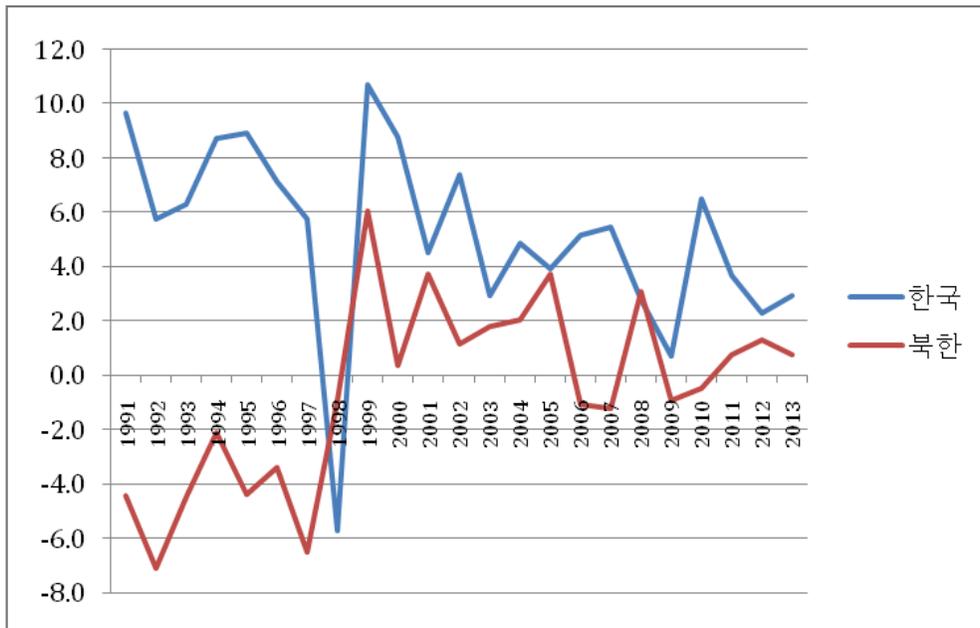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교역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 1992년 8월 수교하였고 2008년 5월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 1994년 김영삼 대통령, 1998년 김대중 대통령, 2003년과 2006년 노무현 대통령, 2008년과 2012년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박근혜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은 1995년 장쩌민(江澤民) 주석, 2008년과 2012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2014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13년 6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정치안보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소통 체제 구축에 합의하였고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한중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게다가 중국은 강대국이 되기까지 인내하는 도광양晦(韜光養晦)를 주장하고 개입할 일이 있으면 개입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주장했고 대국굴기(大國崛起), 중국의 꿈(中國夢), 신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등의 논리를 통해 과거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중 간에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이제는 중국이 없으면 한국경제가 문제가 될 정도로 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에 의하면 교역액은 1992년 63억불에서 2014년 2,354억불로 37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한중이 가까워지고 북일이 가까워지는 것은 동북아에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동북아에 그동안 불어 닥친 여러 요인들과 관계가 깊다.

네째, 북한의 계속된 빈곤 상태와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의 증가이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GDP성장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최근 경제 침체를 겪고는 있으나 높은 성장율을 보였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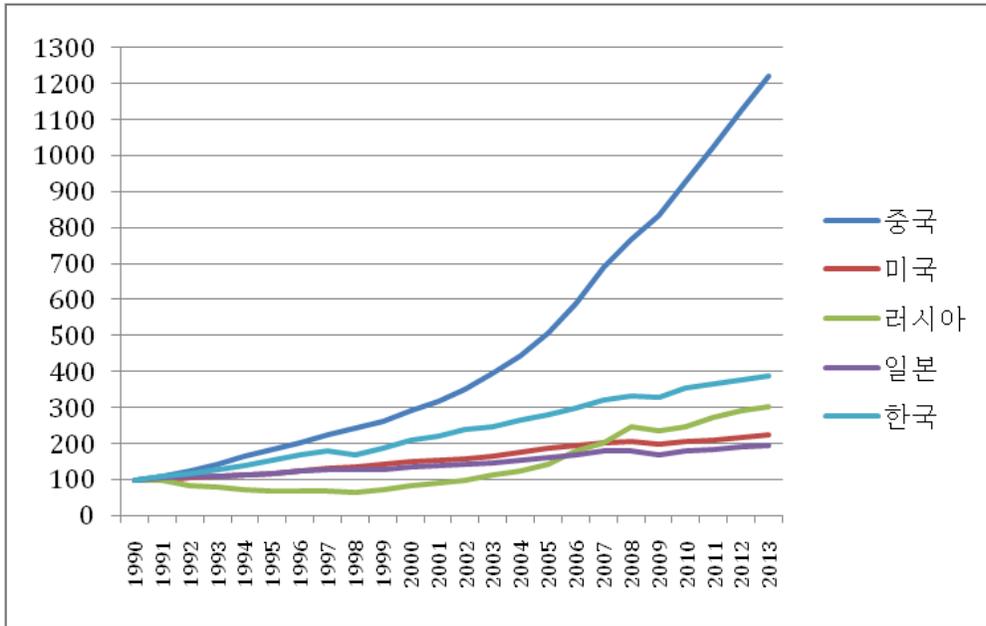
〈그림 1〉 남북한의 GDP성장률(단위: %)



출처: unstats.un.org

사실 동북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 199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의 GNI는 거의 1,200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 미국은 100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과 러시아는 그런대로 200-300 증가하였다. 이렇게 동북아 관계 당사국들의 경제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러시아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성장이 거의 멈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GDP성장률에서도 중국은 거의 7%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거의 1-2%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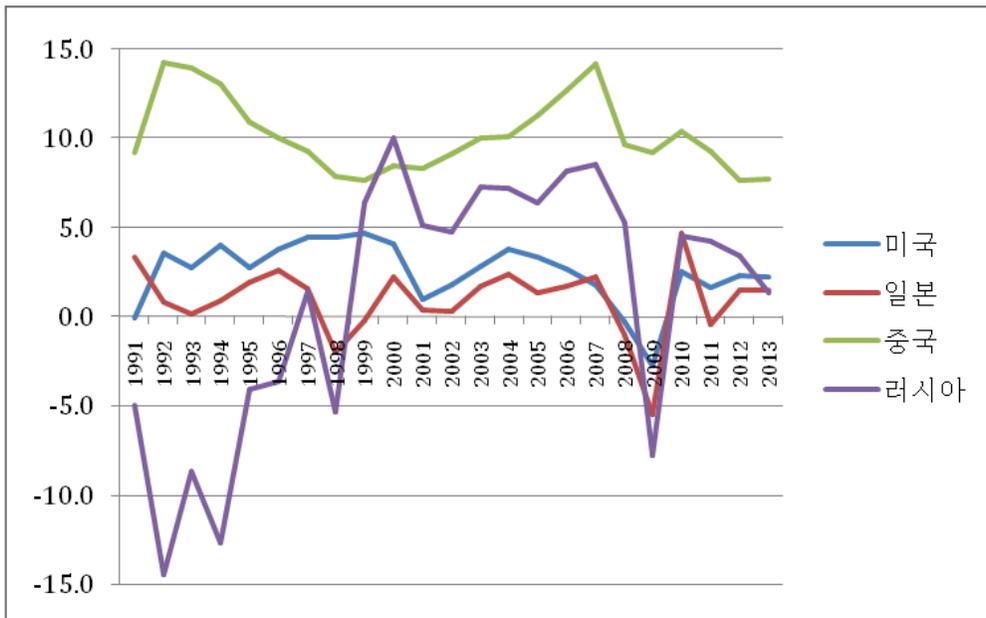
〈그림 2〉 1인당 GNI(PPP 국제달러가격, 1990년 = 100)



출처: World Bank(data.worldbank.org).

〈그림 3〉 동북아 각국의 GDP성장률

(단위 :1 %)



출처: unstats.un.org.

그러나 아직은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1992-2014년 일본의 각년도 GDP의 총합과 각국의 GDP의 총합을 비교하면 중국이 일본의 71.7%, 한국이 15.9%, 러시아가 19.4%, 미국이 244.9%였다. 1992-2014년 미국의 각년도GDP의 총합과 각국의 GDP의 총합을 비교하면 중국이 29.3%, 한국이 6.5%, 일본이 40.8%, 러시아가 7.9%였다.

<표 1> 1992-2014년 GDP 총합에서 동북아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	몽고	일본	미국
일본 GDP총합	15.9	7.4	71.7	19.4	0.08	100	244.9
미국 GDP총합	6.5	3.0	29.3	7.9	0.03	40.8	100

출처: 朴健一(2015).

게다가 군사력의 경우에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1.99%에 불과한데 비해 GDP가 많은 미국은 4.35%를 투자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GDP에서 차지하는 주변국들의 군사비지출 (단위: %)

	군사비지출	년도
한국	2.80	2012
미국	4.35	2012
중국	1.99	2012
일본	0.97	2012
러시아	3.49	2014

출처: CIA.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경제적으로 잘나가는 국가는 안정을 바라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현상타파를 통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결국, 경제가 잘나가는 중국, 한국, 러시아가 한축이 되고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북한이 다른 한 축이 되고 여기에 동북아에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이 가세하는 상상적인

세력균형 모형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상 타파를 원하는 일본과 북한은 독자적인 힘으로 군사행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일본은 막강한 자위대를 가지고 있지만 평화헌법이라는 미명하에 대외적인 군사행동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군사력이 동북아에서 한참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는 데르자브노스트(derzhavnost')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국가와 강대국 지위를 염원하는 것이다(Sakwa 2003, xiii). 러시아로서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안보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토보전과 신뢰구축을 하며 러시아의 극동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국가들과 정치경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Sakwa 2003, 181). 사실 거의 200-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러시아가 2-3류 국가로 전락하여 러시아의 위협은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Zhu 2010, 29). 러시아의 경우에도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Sergei Ivanov)의 이름을 딴 이바노프 독트린(Ivanov Doctrine)을 통해 2003년 미국처럼 러시아군이 갈등의 스펙트럼에 따라 어떤 우발사건에도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Goure 2014, 66). 그렇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의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국과의 대결을 택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가 달라질 수 있다.

Ⅲ. 반딧불 시나리오

동북아에서 평화를 이루는 시나리오는 어쩌면 “반딧불(firefly)”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어두운 밤에 마을과 공동체를 반딧불들이 환하게 비추주는 시나리오로서 평화에 저해되는 어두운 측면들이 사라지고 밝아지며 태양이 뜨는 새벽을 기다리는 시나리오이다.

상황이 악화된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시나리오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했 듯 강대국들이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안정화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EIU(2013)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완전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지만 민주주의 지수는 각각 8.11, 8.08로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의 9.93와 큰 차이가 난다.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국가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완전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지수는 8.06이지만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민주주의 지수 3.59로 권위주의 체제이며 중국은 3.00으로 역시 권위주의 체제이다.

북한은 1.08로 권위주의체제에 속하기는 하나 완전 독재국가이다. 민주주의는 평화와 직결된다. 따라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전쟁광적인 지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강대국들의 내부적인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소국들의 내부 상황과도 연계되어 있다. 미국이 과거의 토크빌이 찬양한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이상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강대국들의 정치안정과 민주화이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전쟁이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학자들은 중국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일당지배를 바탕으로 먹여 살리는 문제를 해결했고 서서히 민주화로 발전한다는 덩샤오핑의 구상이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정치안정을 통해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증가한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부정부패의 문제가 여전히 중국 정치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서서히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사람들도 과거 6.4천안문사태처럼 시위 등을 통한 변화를 원하기보다 어느 정도 먹고는 살게 된 만큼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 경향은 부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 효과가 있었다. 부정부패 척결도 어느 정도에 그치고 정말 부정부패에 의한 파트롱-클라이언트(patron-client)적인 관계가 없어지기에는 힘들지만 경제가 계속 성장 한다는 가정 하에서 점차 민주적인 정치개혁으로 변해 갈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어쩌면 북한과 관련하여 헤저드와 노랜드(Haggard and Noland 2009, 134)는 “북한 플러스(North Korea plus) 체제” 즉, 북한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지역 및 세계 경제에 통합시키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기존 제도를 복제하지 않는 체제가 가장 그럴 듯한 경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로가 열매를 맺고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메카니즘은 역효과를 가질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에 개혁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민주화 과정을 걷게 되면 바로 평화의 길일 것이다.

반딧불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동반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퍼거슨(Niall Ferguson)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Chimerica”를 강조하고 있다. 브레진스키(Brezinski)는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것 같지 않고 경제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았다(Doyle 2009, 142-151). “겔리버는 혼자 할 수가 없다(Gulliver can't go it alone)”. 조셉 나이(Joseph Nye)가 <미국권력의 패러독스(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에서 일방주의를 비판하였다(Kane 2006, 1). 브레진스키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 낙관론적

이다. 중국 지도부가 스탈린의 러시아나 히틀러의 독일과 달리 자신의 가치를 다른 세계에 부과하려는 마니교(Manichaeism)에 따르지 않고 있고 세계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파멸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Brzezinski 2008, 114).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평화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미 공동지배(condominium)가 G-2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이다. 미국은 다시 동북아로의 복귀를 통해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르(Daniel Goure 2014, 65)는 미국 방위문서에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포함된 갈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일본을 지원하는 것은 이 시나리오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과거의 동시 두지역 개입 불가 방침이 바뀌어 어디든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방위문서들에 의하면 전쟁과 평화의 전통적 구분이 모호해졌고 미국은 동시에 2개 이상에서 두개의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적군을 격파할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국방장관 레온파네타(Leon Panetta)의 2012년 발언에서도 미국은 “동시에 여러 갈등을 싸울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Goure 2014, 65).

IV. 투키디데스 함정 시나리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시나리오는 갈등과 긴장 시나리오이다. 미국이 패권에서 멀어지고 있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쇠퇴하는 패권국가와 부상하는 패권국가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과연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투키디데스 함정과 관련하여 1500년 이래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에 도전하며 부상하던 15건 중 11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엘리슨(Graham T. Allison)은 이야기한다(Krause 2014, 1422). 하나의 패권 국가가 몰락하고 새로운 패권국가 등장할 때 전쟁을 수반하는가는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북아에서 국제정치적 변화 요인들이 최근 20년대 축적되어왔다. 이러한 증가는 잠재적 갈등을 증폭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축적되어 있는 잠재적 에너지들이 분출하게 되면 사태는 건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 위협론이나 중국 붕괴론 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대체로 중국이 계속 비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중국이 이니시에이터가 되어 촉발되는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충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긴장을 촉발하는 경우이다. 흔히 생각하듯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영토분할을 당하거나 강대국 지배에 반발하는 신흥 강대국이 부상할 때 전쟁과 같은 갈등을 예정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신흥강대국과 기존 강대국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1914년 독일의 상황과 2014년 중국의 상황을 똑같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크라우제(Krause 2014, 1422)에 의하면 아베가 2014년 1월 중국의 부상은 100년 전의 독일의 부상에 비교하였고 이러한 것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라우제는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의존적이 되고 비즈니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미 충돌 시나리오는 없다고 본다. 그나마 중국의 1914년의 독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Krause 2014, 1446).

미국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미국은 윌슨(Woodrow Wilson)이나 부시(George W. Bush)의 단일주의(unilateralism)를 통하거나 중국과 협력을 통해 유지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정반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니시에이터(initiator)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국이 직접 나서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전쟁 상황을 만들거나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해왔고 전쟁을 조장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슈미트에 의하면 미국이 참여했던 큰 전쟁인 베트남전쟁과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었고 한국전쟁과 1991년의 쿠웨이트 전쟁은 유엔의 묵시적 승인을 받았지만 쿠웨이트의 경우 미국이 매수해서 승인을 얻었고 한국전에서는 유엔이 경험이 없어 미국이 유엔의 투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14년 동안에 8번의 전쟁을 치루었다(Schmidt 2005, 5). 사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200차례 이상 군사력을 사용했는데 모두가 전쟁선포 없이 또는 의회 승인없이 행해진 것이다(Schmidt 2005, 23). 20세기 이전에는 1812, 1846, 1898년 의회가 대통령에게 전쟁승인을 했고 윌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가를 사실상 전쟁 상태로 몰고 갔지만 1917년과 1941년에 의회가 반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트루만의 한국전쟁 이후 의회의 승인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Schmidt 2005, 24). 따라서 미국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냐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윌슨이나 부시적인 일방주의를 취하고 계속 패권을 유지하려할 때 갈등적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것이다. 윌슨적인 국가에서는 미국은 적을 식별하고 “사악한” 독재자를 찾는데 바쁘다. 부시는 자신이 신의 도구이며 국제관계를 성서적인 선악의 대결로 보았다(Schmidt 2005, 11). 부시독트린(Bush doctrine)은 결국 윌슨적이다. 윌슨은 자유민주주의 확산, 개방적 국제시장, 갈등 해소를 위한 다변적 기구를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이야기했다(Smith 2009, 57-59). 미국으로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출로는 갈등 극대화 밖에 없다. 첫째,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이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반중 라인을 구축하고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미 미일 간에는 이러한 동맹관계가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은 자신들을 서구적인 국가로 생각하지 아시아적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제스처의 첫 단계는 미국이 일본의 전범 행위를 묵인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아베 총리를 초청하여 상하원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것은 동북아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청색경보가 아니라 긴장의 서막을 알리는 적색경보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라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고 장려하기까지 하고 있다.

갈등 시나리오의 이점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작은 국가들을 거느릴 수 있다는 장점과 대외 무기 수출을 지속시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현상들은 동북아 관련 강대국들에게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페트리엇 미사일 등 미국의 무기를 많이 구입한 국가이다. 물론 한국도 무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기종이 아니라 유럽 기종을 택한 것은 하나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2015년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로 미국 보잉의 KC-46A기종이 탈락하고 유럽 에어버스 D&S의 기종이 선정되는 이변이 있었다.

문제는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이 아직 미국에 훨씬 못 미치지만 중국이 계속 군사력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중국 군사비지출은 2004년 255억달러였던 데 반해 미국은 4,559억 달러로 17.8배 차이가 나며 1인당 군사비 지출로 보면 77배의 차이가 난다. 또한 중국은 1제곱킬로미터 당 2,645달러를 쓰는 반면 미국은 52,000달러를 쓴다. 중국은 군인 1인당 11,374달러를 쓰며 미국은 350,000달러를 쓴다고 한다(Craig 2007, 38). 그동안 중동문제에 불잡혀 동북아 문제를 신경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신대국 관계와 원인을 표명하여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전통적인 정치군사안보보다 경제문화안보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해양에 진출하기는 하지만 해양보다는 대륙인 중앙아시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진타오 이후 조화로운 사회(和諧), 공동발전, 공동책임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일본이나 태평양보다는 서부내륙 쪽으로 시야를 돌렸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지역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부유럽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로 중국을 제외하고 인구가 30.8억 명이며 GDP규모는 12.8만억 달러로 세계의 44%와 17%를 차지하고 있다.(朴珠華·劉滿萌·騰桌攸 2015, 188). 이 지역에 중국의 FDI가 투자된 비율을 보면 2008년 41.34억 달러로 1.02%를 차지하였고 2013년에는 126.34억 달러로 3.7%를 차지하였다(朴珠華·劉滿萌·騰桌攸 2015,189).

V. 인디펜던스데이 시나리오 vs. 말괄량이늑대계약 시나리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가? 북한의 가장 취약점은 오랫동안 먹여 살리지 못해 죽는 아사자가 많았고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영화 “인디펜던스데이(Independence day)”에서 보는 것처럼 철옹성의 벽도 바이러스 때문에 붕괴한다. 북한 정권이 철옹성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등이 유입되면 북한도 개혁개방이 되면서 독재자들은 권좌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다. 비록 민주화되어 구 세력이 다시 권력을 유지한다 해도 이전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동유럽 사태에서 민주화혁명들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사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조한범·황선영(2013, 55-57)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적 영역의 시민사회 형성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에마누엘 토드(Emmanuel Todd)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문자 해독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아 프랑스나 유럽국가처럼 인구사회학적으로는 근대화된 국가이다. 단지 독재자가 권좌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인디펜던스데이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북한독재정권에 치명적인 것은 돈과 자본이다. 미국은 돈과 자본 그리고 개인주의 등이 북한에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쉘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경제발전이 있어야 하고 이 수준을 1인당 GDP 4,000달러로 잡았다. 효과가 훨씬 크고 국가 간 무력 충돌 없이 북한정권 붕괴를 가져오는 돈과 자본을 통한 북한정권 붕괴를 왜 미국은 반대하는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지만 북한 독재정권의 존재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대중국 정책의 부산물일 뿐이고 북한을 민주화시키거나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핵문제를 핑계로 북한이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미국에서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미국이 세계의 민주주의 전도사가 되기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세습독재정권인 북한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와 독재정권의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돈과 자본을 들여보내는 것이 첩경이며 무력충돌의 위험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를 추구하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보호정책을 계속 추구해왔다.

따라서 평화를 구가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그 이유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위해 철의 장막을 치고 북한을 철통같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에 만약 자본과

개인주의가 들어갔다면 북한의 독재자들은 루마니아의 전독재자 차우체스쿠(Nicolae Ceausescu)의 전철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이 핵문제라는 미명하에 북한에 외부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 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북한 주민들은 폭정에 시달리는 것이다. 해거드와 노랜드(Haggard and Noland 2009, 135)가 지적하듯 동북아에서의 경제 아젠다는 핵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핵문제는 사실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원래 햇볕 정책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을 민주화시켜 독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핵문제 자체가 이슈가 되지 않고 없었을 텐데도 미국은 핵문제를 구실로 북한에 개인주의나 자본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왔다. 역사적으로 굵은 백성이 많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이면 벌써 북한의 독재체제가 망해도 벌써 망했을텐데 현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왕조체제가 3대 세습까지 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철통 같은 보호막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말괄량이 길들이기(The Taming of the shrew)”처럼 길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먹을 것을 가지고 길들이는 것처럼 케도(KEDO)라는 것을 통해 먹이를 줄까 말까하면서 순응시켜왔다는 점이다. 지루한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어왔다. 2002년 10월 KEDO프로그램을 종식시켰고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시작으로 지루한 과정이 반복되었을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결국 북한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항상 부르짖고 있고 한국은 배제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말괄량이 길들이기 시나리오라고 명명하고 싶다. 여기에다가 “늑대계약(La pacte des loups)”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영화로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키고 곁에 두꺼운 철갑 옷을 입혀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라는 철갑으로 무장하였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미국의 방조로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늑대계약 시나리오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북한과 관련하여 T-P(Taming and Pacte) 시나리오를 미국이 고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들이 가능한 이유는 킴멜(Jimmy Kimmel)의 2013년 10월 ABC 방송 라이브 쇼에서 아이들의 입을 빌리긴 했지만 막대한 중국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모든 중국인을 죽여라(Kill everyone in China)”라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잘나가는 중국의 눈밖에 벗어나면 기업인들이나 학자들이 왕따를 당하는 에이면 핑글턴 말대로 미국이 “용의 이빨에 물렸다”고 할 정도여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열세를 일시에 반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군사적 충돌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카고 시민들 중 7명 중 1명이 굶고 있다는 지하철 광고가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와 빈곤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부분 빈곤층이 흑인인구라는 점에서 불만의

경향은 높다. CEO의 봉급이 1984년 평균 미국 노동자의 42배였지만 1990년에는 107배, 2007년에는 364배로 증가했다(Jett 2008, 149). 현재 달러를 무차별 발행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외국의 재산들을 사들이고 있지만 버블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중국에 대한 외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아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국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되게 되면 미국이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붓어김선 달 처럼 찍어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다. 아울러 중국을 경제적으로 수렁에 빠뜨리면 미국 자신도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슈미트(Schmidt 2005, 5)는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동의어처럼 믿게 되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가 전쟁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돈을 모금하고 막대한 무기를 생산하고 시민군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군사적 모험에 열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하면 전쟁을 지지하도록 온 광고매체가 동원되고 군사적 위기는 적은 나쁘고 사악한 괴물인데 반해 앵클 샘은 좋은 빛나는 사마리아인으로 항상 비쳐진다는 것이다. 사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제트(Jett 2008, 143)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21세기 외교정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외교정책이 국익을 반영하지 않고 특수이익을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권력집단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탐욕이 지배하고 탐욕이 하나의 미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이 동북아에서 순간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일본과 북한이 미국의 광대처럼 조종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본에는 “외압(gaiatsu)”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압력”을 뜻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의미하며 언론에서는 외교정책이나 안보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다. 외압은 “악마가 나를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것과 유사하다 (Cooney 2007, 134). 일본은 “외압”으로 미국의 입장에 쉽게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에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30여 년 동안 말팔량이 길들이기와 늑대계약 시나리오를 통해 이제는 완전히 북한이 미국에 굴복해 백기를 든 상태이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한다 어쩐다 위협하지만 이것은 야수를 길들일 때 으르렁대는 것일 뿐이다. 북한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한 친중파인 장성택을 숙청하기도 했고 최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초청을 받았지만 거부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최근 군부에 대한 숙청소식이다. 군부는 보통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숙청은 대외정책의 변화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의 군부 숙청은 김정은의 친미 노선에 군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인 인질을 미국에 데려갈 때 미국무부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미정보부의 제임스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은 군비행기까지 직접 북한에 보내 미국인을 데려오고 공식명칭에서 North Korea를 쓰다가 DPRK라고 호칭했다고 뉴스들은 전한다. 다른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마오쩌둥(毛澤東)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 하자 린뱌오(林彪) 등 군부세력이 반대했고 군부세력은 5.71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마오 제거 음모도 꾸몄다. 또한 당시 중국 관련 비공식문건에 의해서지만 린뱌오가 마오를 제거하기 위해 소련에 비밀리에 알리고 소련과 국지전쟁을 치룬다는 계획도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부가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마오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상황은 많이 있었다.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폭탄 세례를 하겠다는데도 미국은 묵무부담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똥개가 짚는 것”을 즐겼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든다. 미국에게는 북한은 “계류”일 뿐이다.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을 직접 치렀던 베트남과도 수교했고 한국전에서 싸웠던 중국과도 수교 했고 최근에는 쿠바와도 관계개선을 했는데 반해 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반대하고 “악의 축”이라는 논리로 일관하는지는 자명한 것이다. 맥도날드 판매점이 있는 두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맥도널드이론, 델컴퓨터 판매망이 있는 두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델이론이 미국 보수파의 이야기지만 왜 북한에는 맥도날드와 델 컴퓨터가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아마 북한이 미국으로서는 좋은 카드일 수밖에 없다. “늑대계약” 시나리오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이제 북한에 핵이라는 갑옷까지 입혀주었으니 가장 핵에 취약한 국가는 수도가 인접한 베이징일 수밖에 없다. 북한 핵은 미국의 워싱턴보다 중국의 베이징이 가깝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은 중국인들에게는 “가느다란 실에 메달린 칼날(一根细丝悬着利剑)”이다(姜声扬·史兆琨2013, 77). 흔히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혈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양국은 옆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낼 뿐이지 좋은 관계는 아니었고 중국으로서는 “짜증나는 존재(麻烦)”일 뿐이다.

VI. 결 론

동북아의 운명은 정치적이라기보다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국가들이 일거에 현상을 타파하고 반전을 꾀하기 위해 재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그 선택권은 동북아 지역 세력이 아닌 미 대륙의 미국 손에 달려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내부 갈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쟁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경제적으로 잘나가는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현상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일본이나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현상타파를 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중국-한국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일본-북한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대립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미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반딧불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투키디데스 시나리오나 정말 미국이 전쟁의 이니시에이터가 되는 킴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과 일본을 무장시켜왔다. 단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군사적 역지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도 더 이상 전쟁의 이니시에이터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국 군사력이 미국의 1/3 수준만 되어도 미국은 전쟁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미국은 북한이나 일본을 조종하여 군사적 모험을 감행시키고 미국이 참여하여 킴멜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이다. 미국은 전쟁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며 미국은 더 이상 핵 문제를 핑계로 북한에 자본주의, 개인주의, 인권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며 북한을 철통처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 말괄량이 길들이기 시나리오, 늑대계약 시나리오를 과감히 포기하고, 인디펜던스 데이 시나리오를 늦게나마 추구하고 킴멜 시나리오를 포기하여야 동북아 평화가 이루어 진다.



- 성기영 · 김지영 · 엄상윤 · 은용수. 2014. 『신동북아 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조한범 · 황선영. 2013.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서울: 통일연구원.
- 姜声扬 · 史兆琨. 2013. “朝鲜：伙伴还是麻烦？朝核问题折射中国战略思维漏洞对话著名时事评论员邱震海.” 「祖国」, 3期.
- 朴健一. 2015. “东北亚地区局势与‘一带一路’构想.” 张洁主编, 中国周边安全形势评估: “一带一路”与周边战略.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朴珠华 · 刘满萌 · 腾卓攸. 2015. “中国对‘一带一路’直接投资环境政治风险分析.” 张洁主编, 中国周边安全形势评估: “一带一路”与周边战略.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Bennet, Bruce W. 1996. “Is a Second Korean War Possible? A Hypothetical North Korean Invasion Scenario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KNDU Review* 1:95-137.
- Brzezinski, Zbigniew. 2008. *America and the World: Conversations on the Fut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Basic Books.
- Cooney, Kevin. 2007. *Japan’s Foreign Policy since 1945*. New York: Armonk.
- Craig, Susan L. 2007. *Chinese Perceptions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Washington: SSI.
- Doyle, Randall. 2009. *The Roots of War in the 21th Century: geography, Hegemony, and Politics in the Asia-Pacific*.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3. Democracy Index 2013.
- Goure, Daniel. 2014. “Moscow’s Visions of Future War: So Many Conflict Scenarios So Little Time, Money and Forces.”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27(1): 63-100.
- Junio, Timothy. 2013. “Conceiving of Future War: The Promise of Scenario

-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5: 374-395.
- Kane, Thomas M. 2006. *Theoretical Roots of US Foreign Policy: Machiavelli and American Unilateralism*. New York: Routledge.
 - Krause, Joachim. 2014. “Assessing the danger of war: parallels and differences between Europe in 1914 and East Asia in 2014.” *International Affairs* 90(6): 1421-1451.
 - Sakwa, Richard. 2003. “Putin’s Foreign Policy: Transforming ‘the East’.” In Gabriel Gorodetsky, ed., *Russia between East and West*, pp.166-186. London: Frank Cass.
 - Schmidt, Donald E. 2005. *The Folly of War: American Foreign Policy 1898-2005*. New York: Agora Publishing.
 - Smith, Tony. 2009. “Wilsonianism after Iraq.” In G. John Ikenberry et al. ed., *The Crisis of American Foreign Policy: Wilsonia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pp.53-8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9. “A security and peace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the economic dimension.” *The Pacific Review* 22(2): 119-137.
 - Zhu, Liqun. 2010. *China’s Foreign Policy Debates*. Chaillot papers,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Forbes(<http://www.forbes.com>).
 -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unstats.un.org).
 - World Bank(data.worldbank.org).

● 투고일: 2015. 8. 14. ● 심사일: 2015. 8. 17. ● 게재확정일: 2015. 8. 20.

Peace Senario for Northeast Asia: a Revisionist View

Rhee, Yangho

(Peace and Democracy Insitute, Korea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formed in the past during Cold War period based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Unites States-Japan-South Korea and China-Russia-North Korea, seem to be changing with the two sides of Korea switching the axis; North Korea joining with United States and Japan as an axis, and South Korea with China and Russia as another axi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from the revisionist perspective through scenario thinking. There are two basic scenarios: “Firefly” scenario as a peaceful solution and “Thucydides trap” scenario as a violent solution. And especially, “Independence Day” scenario, “Taming of the Shrew” scenario, “Pacte des Loups” scenario, and “Kimmel” scenario are explained, particularly engaging with the Korean peninsular situation. The initiatives for both peace and conflict are in the hand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Key words〉 Northeast Asia, Scenario, Peace, Revisionism